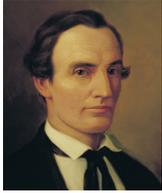


교리와 성약 23~24편: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

다음 인물 중 적어도 두 명을 골라서 자료를 읽어 본다. 주어진 경전 구절에서 각 인물에 대한 역사적 요약과 관련된 문구를 찾아 본다. 이 활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각각을 아셨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권고를 주셨다는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
올리버 카우드리

교리와 성약 23:1~2; 24:10~12



올리버는 학교 교사였다. 그는 조셉 스미스 이세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서기로 봉사했다. 그는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이었으며, 회복된 교회의 두 번째 장로였다. 그는 뉴욕주 페이엠티에 있는 휘트머 가족 및 다른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었다. 그는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계시의 일부에 관해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교만을 보였다. 교만으로 인해 그는 1838년부터 1847년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다.

하이럼 스미스

교리와 성약 23:3



하이럼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이었다. 그는 인쇄업자와 직접 함께 일하면서 몰몬경이 출판되도록 도왔다. 그에게는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었지만,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다.(교리와 성약 11:21~22 참조) 그는 뉴욕주 콜스빌에서 교회의 첫 번째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다. 하이럼은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으며 평생 주님께 충실했다.

조셉 나이트 일세

교리와 성약 23:6~7



조셉 나이트 일세는 조셉 스미스 이세의 친한 친구였으며 조셉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. 그는 선지자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. 그는 교회가 조직되던 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침례 받기를 바랐으나, 몰몬경을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다. 교리와 성약 23편에서 주님의 권고를 받은 직후, 조셉 나이트 일세는 침례를 받기로 선택했다. 그는 평생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 남았다.

조셉 스미스 이세

교리와 성약 24:1~9



조셉 스미스 이세는 주님의 선지자였다. 1830년 4월에 조셉은 회복된 교회를 조직했다. 새로운 교회는 즉시 박해에 직면했다. 조셉은 여러 차례 무고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. 그에게는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. “교회가 새로 조직되어 몹시 바빴지만,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때맞춰 밭에 씨를 뿌려야만 했다. 장인에게 농장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기한도 이미 지났는데, 농사까지 망친다면, 조셉은 빚을 갚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었다.”(『성도들』, 제1권, 90쪽)

예수 그리스도

후기 성도 교회